

- 주요 뉴스: 미국 재무장관, 지속적 금리인하 필요, 연준 일부 인사는 다소 신중한 입장 파력
 - 미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거부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 초래
 - LSEG, 유럽 기업의 2/4분기 이익 전망 상향. 독일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보합
 - 중국 7월 은행 신규대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수요 부진·계절적 요인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9월 금리인하 기대 고조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하 전망 강화, 일부 반도체 관련주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 기업실적 개선 가능성 등으로 0.5%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정부의 강력한 금리인하 요구 등을 반영하며 2주 만에 최저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베센트 재무장관의 금리인하 발언 등으로 하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6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77.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79.8원, 0.14% 하락). 한국 CDS 강보합

		8/13일	8/12일	전일대비			8/13일	8/1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66.6	6,445.8	+0.32%	국채 금리 10y	미국	4.23%	4.29%	-6bp
	유럽	550.85	547.89	+0.54%		독일	2.68%	2.74%	-6bp
	중국	3,683.5	3,665.9	+0.48%		영국	4.59%	4.63%	-4bp
	일본	43,275	42,718	+1.30%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3,224.4	3,189.9	+1.08%		중국	44bp	44bp	+0bp
환율	달러지수	97.80	98.10	-0.31%	위험 지표	EMBI+	-	340	-
	유로화	1.1705	1.1675	+0.26%		VIX	14.49	14.73	-1.63%
	엔화	147.38	147.84	+0.31%		WTI유	62.65	63.17	-0.82%
	위안화	7.1766	7.1814	+0.07%	원자재	구리	449.80	452.60	-0.62%
	원화	1,381.7	1,389.9	+0.59%		금	3,355.9	3,348.3	+0.2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재무장관, 지속적 금리인하 필요. 연준 일부 인사는 다소 신중한 입장 피력

- 베센트 재무장관은 연준이 9월에 50bp 인하를 시작으로 일련의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일부 모델은 금리가 현 수준보다 150~175bp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고 부연. 7월 고용자 수의 둔화 및 5,6월의 고용자 수 하향 조정은 9월 큰 폭의 금리인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
-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을 3~4명으로 압축했으며, 새 의장은 과거에 비해 좀 더 일찍 지명할 생각이라고 언급.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인선 작업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파월 의장의 힘을 빼려는 전략으로 평가
- 시카고 연은의 굴스비 총재는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들을 살펴본 후에 금리인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발언. 이는 9월 금리인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로 해석. 애틀랜타 연은의 보스틱 총재는 연내 1회의 금리인하를 예상하며, 이는 양호한 고용 여건을 가정한 것이라고 첨언. 고용 여건이 바뀌면 정책 경로도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
- 한편, 베센트 장관은 향후 2~3개월 이내에 중국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 또한 중국의 對美 투자가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이는 중국과의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Nvidia와 AMD에 '對中 수출액 15%의 정부 지급'이 적용되는데, 이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거부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 초래

-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정전을 거부하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번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
- EU의 정상들은 러시아와의 정전 합의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 라우 정전 합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 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

■ Standard Chartered. 연말 이더리움의 목표가 7500달러로 상향

- 제프 캔드릭 디지털 자산 연구 책임자는 이더리움이 연말에 7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전 전망(4500달러)을 상향. 스테이블코인 부문은 '28년까지 현 수준의 8배까지 성장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수수료도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

■ LSEG, 유럽 기업의 2/4분기 이익 전망 상향. 독일 7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비 보합

- 유로STOXX600 기업의 2/4분기 이익은 전년동기비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3.1%)에 비해 상향된 결과. 부문별로는 기술, 헬스케어, 금융 부문의 기업 이익이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독일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HICP)는 전년동월비 1.8% 올라 6월과 동일한 수준. 연방통계청은 연초 이후 물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이번 결과는 에너지 가격의 하락 등에 기인

■ 중국 7월 은행 신규대출, 20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 수요 부진·계절적 요인 반영

- 7월 은행의 신규대출은 500억위안 줄어 6월(2.24조위안) 대비 큰 폭 감소. 신규대출이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며, 이는 계절적 요인과 수요 부진 등에 기인. 시장에서는 당국에서 대출 축진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 다만 M2 통화량은 전년동월비 8.8% 늘어 양호한 증가세 지속
- 한편, 상무부는 EU가 자국의 2개 은행을 러시아 관련 제재 명단에 포함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리투아니아의 2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포함

■ IEA, 내년 원유시장의 과잉 공급 예상. 일본 7월 기업물가 상승률은 둔화

- IEA(국제에너지기구)는 내년 원유시장에서 수요 증가가 둔화되는 반면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이에 공급 우위 여건은 내년에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일본 7월 기업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6% 상승하여 전월(2.9%) 대비 둔화. 3개월 연속 3%를 하회했으며, 이는 농수산물 가격 상승세 약화 등에 기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1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7월 생산자물가, 8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유로존 2/4분기 GDP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금융시장의 트럼프 행보 관련 무심한 반응, 제도·규범 훼손 확대될 우려 - Financial Times

(Investors are frogs in a Trumpian pot)

-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투자자들은 그의 잇단 파격 행보에도 무심하게 반응. 시장은 관세 혼란, 노동통계국 및 연준 인사 개입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흐름 유지. 이에 대해 ▲트럼프 정책이 실제 옳거나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는 해석이 존재. 일부는 이러한 상황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연준 의장 인선 등 세부 이슈에 집중하여 제도·규범 훼손에 따른 장기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 양호한 기업실적과 금리인하 기대가 단기 낙관론을 지탱하며 ‘음악이 계속되는 동안 춤추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처럼 잠잠한 시장 반응은 트럼프가 규범과 제도를 한계까지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미국 기업의 실적 호조, 관세정책에 따른 여파 고려 시 지속은 불투명 - Financial Times

(Lessons from an upbeat US earnings season)

- 트럼프의 관세정책에도 S&P500 기업의 2/4분기 실적은 대체로 예상치를 상회. 이는 ▲S&P500 기업 중 관세의 직접적 표적이 되는 비중이 17% 미만 ▲기업의 다양한 관세 영향 완화 전략 ▲AI부문의 이익 증가 ▲은행의 양호한 실적 등에 기인
- 하지만, 소재, 산업재, 소비 부문 기업은 저조한 이익 증가율 압박에 직면. 실제로 GM은 직전 분기 11억 달러의 관세 비용을 지출했으며, 나이키는 수입관세 비용이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 S&P500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충격도 점차 확대될 전망. 이에 경기회복 신호 관련 신중한 판단이 요구

■ 연준 일부 인사의 금리인하 주장, 서비스 인플레이션 고려 시 재검토 요구 - 블룸버그

(The Case for Fed Cuts Suddenly Has Some Holes)

- 연준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근거로 금리인하 필요성을 주장.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연준의 인사들은 관세의 영향을 제외하면 인플레이션 억제가 성공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리인하를 확신하기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제기
- 특히,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은 수준의 관세율로 금년 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추정. 또한 관세 부과 대상인 자동차 산업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추가 상승 전망이 우세. 노동시장에서도 이민제한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축소의 여파를 살펴봐야 하는 상황

■ 중국의 對美 무역협상 전략, 단기 손실 감내하면서 장기적 우위에 집중 - 블룸버그

(China Is Playing the Long Game on Trade. It's Working.)

- 美中 무역전쟁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의도가 반영. 단기적으로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직면. 그러나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장기 전략을 고수하며 단기적 피해를 감내하고 있기 때문
- 한편, 중국은 장기 전략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90일 추가 유예에 성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습. 이로써 중국은 내수부진 등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다음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 확보. 무역협상이 장기간 진행될수록 對美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 자국 내 지지세력 결속 등도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미국 역대 최저 수준의 신용 스프레드, 양호한 기업실적재정불안 등을 동시 반영 - 블룸버그

(Credit Spreads Aren't Hiding a Market Timebomb)

■ 글로벌 자유무역,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시장 다변화 수요 등으로 유지될 가능성 - 블룸버그

(Globalization Can Survive the US Trad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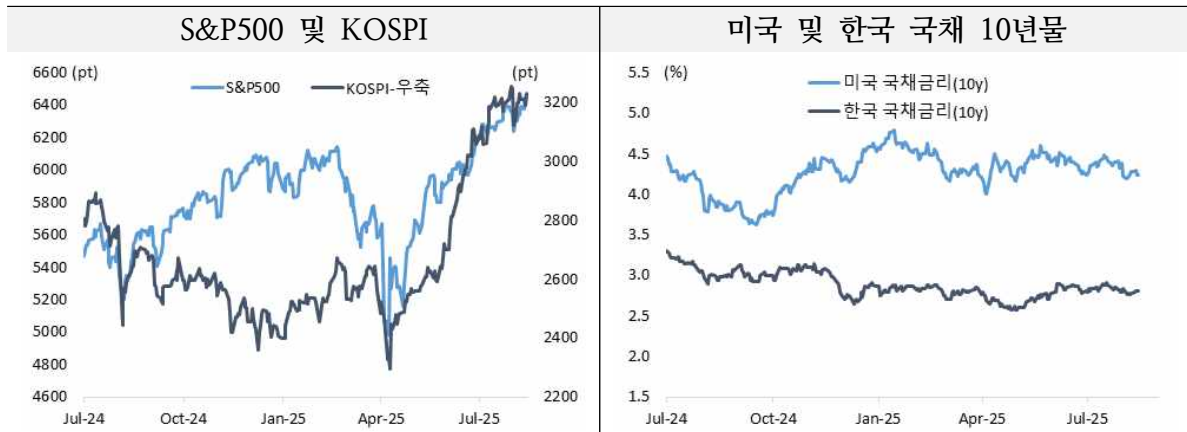
■ 케빈 월시의 작은 대차대조표 화귀론, 연준 통화정책의 실행력 유연성 약화될 우려 - 블룸버그

(Warsh has a fairy tale view of Fed rate policy)

■ 중국의 우수한 공급 능력, 미국의 무역 압력에 맞설 효과적 무기 - The Economist

(How scared should you be of "the China squeez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